

수산자·자원정책·지원·협력국 보다나온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9. 3. 19.(화) 총 6매(본문 2, 참고 4)
담당 부서	수산자원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김영신, 사무관 정효정, 주무관 고선미 • ☎ (044) 200-5530, 5536, 5537
	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	담 당 자	• 경영기획본부장 황진욱, 사회가치혁신실장 조순제 • ☎ (051) 740-2505, 2520, 2524
보 도 일 시		2019년 3월 2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19.(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어린 연어의 힘찬 출발을 응원합니다!”

- 해수부, 20일(수) 양양 남대천에서 어린연어 420만 마리 방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신현석)은 2019년 3월 20일(수) 오후 2시 국내 최대의 연어 고향인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에서 대규모 어린연어 방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어는 횡감, 셀러드 등 다양한 요리로 온 국민이 즐겨 찾는 국민 생선으로, 연어의 유전자에는 조직재생물질이 들어있어 이를 활용한 점안액, 의약품 등의 활용가치도 높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어 수입량은 3억불 정도로서 명태, 새우와 함께 가장 많이 수입되는 어종이다.

정부는 이러한 연어의 자원량을 늘리기 위해 1968년부터 매년 어린 연어 방류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방류사업 초기에는 연간 잡히는 물량이 100마리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자원량이 낮은 상태였으나, 지속적인 방류사업의 성과로 지난해에는 3년간(2015~2017) 평균 약 10만 마리 내외의 어미연어가 잡힐 정도로 자원량이 증가하였다.

올해도 해양수산부는 3월말까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지자체, 수산자원연구기관 등과 함께 연어가 산란하는 전국 주요 하천에 총 1,095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며, 이중 절반 정도인 420만 마리가 이번에 방류된다. 이번 대규모 방류행사에는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학생 등 300여명이 함께하여 어린 연어의 힘찬 출발을 응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연어는 작년 말(10월~12월 중순) 산란을 위해 북태평양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의 하천으로 돌아온 어미연어로부터 알을 받아 부화시킨 후 5개월간 5cm 크기로 키운 개체이다. 타개체와 구별되는 표식*을 부여한 방류된 연어는 북태평양과 베링해로 이동하여 3~5년간 머물다가 성어가 되면 동해안 하천으로 다시 돌아온다.

* 발안란 이석표시 기술 : 수정란 부화 시 사육수의 수온을 조절함으로써 연어의 머리 부근에 있는 뼈(이석)에 나이트 모양을 만들어내어 개체를 구별하는 기술

연어방류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안전하게 돌아온 연어들이 생태친화적인 환경에서 자연산란 할 수 있도록 양양 남대천 일원에 연어 자연산란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하천 생태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적지를 선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영향평가를 거쳐 기본계획과 설계서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관은 “연어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소득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류사업은 물론, 연원 자원의 생태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연어 자연 산란장 조성 사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참고 1

어린연어 방류행사 계획

□ 행사 개요

- 일 시 : 2019. 03. 20(수) 14:00 ~ 15:00
- 장 소 : 양양 남대천 일원(해오름 아파트 앞 하천공터)
- 주최 / 주관 : 해양수산부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후 원 : 양양군, 속초·양양교육지원청
- 참석인원 :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어업인, 지역주민, 학생 등 300여명
- 주요내용 : 기념행사 및 어린연어 방류행사*

* 전체 방류 420만 마리 중 행사 참여자 2천 마리 직접 방류, 나머지 공단 자체 방류

□ 세부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13:50	30'	○ 연어관련 전시· DVD 등 영상물 상영, 바다식목행사, 풍물놀이 등	
14:00~14:10	10'	○ 개회,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사회자
14:10~14:15	5'	○ 인사말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14:15~14:30	15'	○ 축 사	주요 내빈
14:30~14:40	10'	○ 방류장소로 이동	
14:40~15:00	20'	○ 방류행사	참석자

□ 방류기관·방류지역별 방류량

기관명	시도	시군구	하천명	방류량(마리)
합 계				10,950,000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내수면생명자원센터	소계			8,600,000
	강원	양양	남대천	6,200,000
	울산	울주	태화강	200,000
	강원	강릉	연곡천	700,000
	강원	고성	북천	700,000
	강원	고성	명파천	800,000
강원도 삼척시수산자원센터	소계			1,200,000
	강원	삼척	오십천	600,000
	강원	삼척	마읍천	600,000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소계			600,000
	경북	울진	왕피천	500,000
	경북	울진	남대천	50,000
	경북	영덕	오십천	50,000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소계			50,000
	경남	밀양	밀양강	25,000
	경남	하동	섬진강	25,000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	전남	구례	섬진강	400,000
울주군태화강생태관	울산	울주	태화강	100,000

참고 3

연어 방류행사 및 연어 회유 경로 사진

□ 방류 관련 사진



방류용 어린연어



어린연어 방류 행사 모습(남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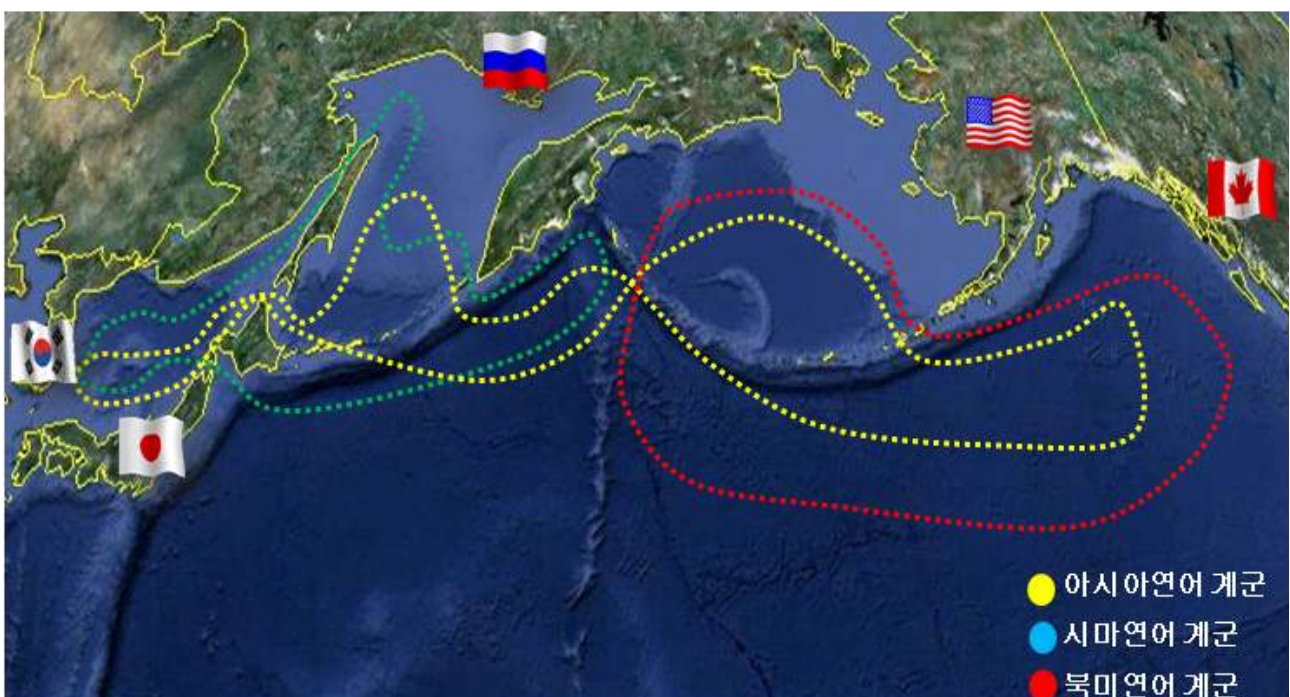


회귀 연어



연어의 산란

□ 연어 회유 경로



참고 4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개요

□ 추진배경

- 국제적 소하성 어류 관리 대상종인 연어 자원보전 및 우리나라 하천으로 회귀하는 연어량이 지속 감소하여 자원증대 대책 마련 필요
 - * 지자체(강원도) 자본보조 : 국비 50%, 지방비 50%

□ 조성방안

- (위 치)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 일원(1개소)
 - *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적지 하천(남대천) 선정, 세부지점에 대한 적지 조사 추진 필요
- (사업규모) 약 58,000㎡(길이 1km, 폭 10m, 채널식)
- (사업기간/소요액/지원조건) 2019~2025년/197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 1단계('19~'23년) 167억원, 2단계('24년~) 30억원, '19년 14억원
- (산란장 조성) 연어류 산란지 확대를 위해 산란수로를 분리·조성하여 인공산란수로, 관리동 및 부대시설 조성
- (산란수로 관리) 산란수로 바닥에 자갈을 설치하고 산란수로 주변에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어 햇빛으로부터 부화 이전까지 수정란 보호
- (물 관리) 산란장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물 저장소를 만들고, 관로를 설치하여 적정량의 물을 공급

□ 향후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19년 예산 14억원)

